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자연’ 인식과 작품 세계*

김 용 찬**

차 례

1. 머리말
2. 윤선도의 생애와 〈어부사시사〉의 창작 동인
3. 〈어부사시사〉의 자연 인식과 작품 세계
4. 맺음말

| 국문초록 |

고산 윤선도는 75수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효의 시조 작품을 남겼으며, 송강 정철과 더불어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문시가의 주요 갈래인 시조와 가사를 모두 창작한 정철과 달리, 윤선도는 시조 작품만을 남기고 있다. 특히 윤선도의 작품들 중 자연을 대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에서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엿보인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강호자연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족감과 그로 인한 고양된 흥취가 적절히 발현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면모가 윤선도를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정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본고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대상으로 작품에 형상화된 ‘자연’ 인식을 살펴보고, 아울러 작품 세계와 작가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보길도가 윤선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작자가 남긴 여러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써 은거지로 보길도를 선택한 이유는 물론, 그 성격을 따져 작품 속에 형상화된 의미를 천착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 반영된 사계(四季)의 형상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각 계절의 특성을 적절히 취해 하루의 일과로 축약하여 이상화된 형태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15).

** 순천대학교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작품 곳곳에 다양한 고사(故事)가 제시되어 있는 바, 이러한 형상을 통해 작가가 표출하고자 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이와 함께 〈어부사시사〉의 작품 세계를 논할 때, 매 작품마다 덧붙은 ‘후렴’과 전체 작품을 종결짓는 역할을 하는 ‘어부사 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렴’은 병렬적으로 제시된 계절별 10수씩의 작품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유기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부사 여음’은 〈어부사시사〉 40수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연군 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작자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화자는 자연에서의 자족적인 삶에 대해 노래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자신이 떠나 온 정치 현실에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어부사시사〉에 형상화된 자연은 결코 단일한 성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작품에 드러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 먼저 윤선도의 생애와 작품의 창작 동인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 형상화된 ‘자연’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핵심어 : 윤선도, 어부사시사, 시조, 자연 인식, 연군 의식, 작품 세계 등

1. 머리말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는 75수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효의 시조 작품을 남겼으며, 송강 정철과 더불어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창작된 시가 작품들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구사되어 있기에, 연구자들에 의해 ‘자연미의 시인’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¹⁾ 국문시가의 주요 갈래인 시조와 가사를 모두 창작한 정

1) 조운제는 ‘장가(長歌)는 송강(松江), 단가(短歌)는 고산(孤山)’이라고 칭하고, 특히 윤선도의 시조를 ‘조선어에 신의(新意)를 창작하고 그를 시가상에 실용(實用)하여 조선어를 예술어답게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조운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330~343면) 이러한 언술은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문학사에서 정철과 윤선도의 시가문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철과 달리, 윤선도는 시조 작품만을 남기고 있다. 특히 윤선도의 작품들 중 자연을 대상으로 형상화한 〈산중신곡〉이나 〈어부사시사〉 등에서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엿보인다고 논의되기도 한다. 대체로 윤선도의 작품들은 관념화된 자연의 면모가 아닌 눈으로 보는 실제의 자연을 작품에 형상화함으로써, 강호시가의 흐름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였다는 평을 획득하고 있다.²⁾ 그가 남긴 다양한 시조들에서는 강호자연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족감과 그로 인한 고양된 흥취가 적절히 발현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면모가 윤선도를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정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본고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대상으로 작품에 형상화된 ‘자연’ 인식을 살펴보고, 아울러 작품 세계와 작가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보길도가 윤선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작자가 남긴 여러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써 은거지로 보길도를 선택한 이유는 물론, 그 성격을 따져 작품 속에 형상화된 의미를 천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절별로 10수씩 전체 40수에 달하는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사계절의 양상과 자연 인식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겠다. 작품에 반영된 사계(四季)의 형상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각 계절의 특성을 적절히 취해 하루의 일과로 축약하여 이상화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작품 곳곳에 다양한 고사(故事)가 제시되어 있는 바, 이러한 형상을 통해 작자가 표출하고자 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이와 함께 〈어부사시사〉의 작품 세계를 논할 때, 매 작품마다 덧붙은 ‘후렴’과 전체 작품을 종결짓는 역할을 하는 ‘어부사 여음’³⁾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렴’은 병렬적으로 제시된 계절별 10수씩의 작품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유기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부사 여음’은 〈어부사시

2) 고미숙, 「우리말의 연금술사, 정철과 윤선도」, 『우리 고전문학을 찾아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일찍이 조선 전기 강호시가의 흐름과 윤선도의 시가사적 위상에 대해서는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3) ‘어부사 여음’은 별도로 창작하지 않고, 〈만흥〉의 제6수의 작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사) 40수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연군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작자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화자는 자연에서의 자족적인 삶에 대해 노래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자신이 떠나 온 정치 현실에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윤선도와 <어부사시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작품의 형식과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결과가 제출된 바 있다.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어부가’의 전승 과정과 <어부사시사>의 관계를 통하여 그 위상을 점검하기도 했으며,⁴⁾ 작품의 미학적 의미에 대해 탐구한 연구 성과도 제출되어 있다.⁵⁾ 또한 <어부사시사>의 형식적 특징⁶⁾과 갈래⁷⁾에 대한 논의를 펼친 연구 성과들도 있으며, 최근에는 문집의 번역⁸⁾과 시조 작품 해설서⁹⁾ 및 윤선도의 일생을 재구한 평전¹⁰⁾도 출간된 바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어부사시사>의 구조 및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4) 이형대, 「어부 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 인식」,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 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천』, 소명, 2002; 류해춘,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 그 표현의도와 수사학」,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5) 성기옥, 「고산 시가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정민, 「〈어부사시사〉의 갈등상」, 『고전문학연구』 제4집, 1988; 정병현, 「어부사시사의 배경과 성격」, 『고산연구』 제3호, 고산연구회, 1989; 이상원, 「〈어부사시사〉의 현실주의적 성격」, 『어문논집』 제34집, 안암어문학회, 1995; 김흥규, 「〈어부사시사〉에서의 ‘흥’의 성격」,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등.

6) 김흥규, 「〈어부사시사〉의 종장과 변이형」,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7) 김대형은 <어부사시사>의 형식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그 갈래를 ‘한 편 한 편’의 시조라기보다는 일관된 내용의 가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어부사시사〉의 외연과 내포」, 『고산연구』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29면.)

8) 이형대 외,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이상현, 『고산유고』1~4, 한국고전번역원, 2012~2015.

9) 김용찬, 『윤선도 시조집』, 지만지, 2016.

10) 고미숙, 『윤선도 평전』, 한겨레출판, 2013.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어부사시사〉에 형상화된 자연은 결코 단일한 성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작품에 드러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 먼저 윤선도의 생애와 작품의 창작 동인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 형상화된 ‘자연’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2. 윤선도의 생애와 〈어부사시사〉의 창작 동인

윤선도(尹善道: 1587~1671)¹¹⁾가 주로 활동했던 17세기는 조선시대에서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심했던 격변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사림의 분열로 당쟁이 격화되었으며,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 등 17세기 초반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전란은 당대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로 심대한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의 격렬한 투쟁으로 점철되었던 조선 전기의 정치 판도는, 선조(宣祖) 연간(1567~1608)에 이르러 사림파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후 사림파 세력들은 견해 차이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된다. 17세기 전반의 정치 상황은 광해군 즉위(1608)와 함께 북인(대북)이 정권을 담당하였고, 인조반정(1623)으로 광해군이 축출된 이후에는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¹²⁾ 윤선도 집안의 당파는 동인 계열의 남인에 속했는데, 그 자신 이리

11) 본관은 해남(海南)이고, 자(字)는 약이(約而)이며, 호(號)는 고산(孤山) 혹은 해옹(海翁)이다. 윤선도의 생애에 대해서는 『고산연구』 창간호(고산연구회, 1987)에 영인된 「연보」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2) 조선시대의 당론은 16세기 중반기에 태동하여, 정치권력이 어느 특정 집단에 번갈아 귀속되거나 집중됨으로써 정책의 고착과 계층의 분화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독특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설명된다. 본고에서 정리한 조선시대의 당쟁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이이화, 「조선조 당론의 전개 과정과 그 계보」(『조선 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 변동』, 한길사, 1994)를 참조했다.

한 정치적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펼쳤기에 생애 내내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야만 했다.

윤선도는 1612년(광해4) 26세의 나이로 진사(進仕)에 급제하였으며, 성균관 유생 신분으로 1616년 당시의 권신(權臣) 이이첨(李爾瞻) 일파를 탄핵하는 상소(병진소)를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상소문은 당시 정권 실세들의 전횡은 물론 과거 시험의 부패상에 이르기까지 통렬한 내용으로 채워졌는데, 이로 인해 반대 당파의 엄청난 비난이 초래되어 윤선도는 끝내 함경도 경원으로의 유배에 처해졌다.¹³⁾ 2년 후인 1618년 유배지가 경상도 기장으로 옮겨졌다가, ‘인조반정’ 직후 대사면령이 내려 8년여의 유배에서 풀려 비로소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치열한 당쟁의 와중에서 윤선도는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아가기 전부터, 당시 집권 세력인 복인 정권에 맞섬으로써 장기간의 유배에 처해지는 등의 시련을 겪었던 것이다. 이후 인조의 즉위로 인해 복인 정권이 몰락했지만, 새롭게 탄생한 정권에서 권력을 잡은 서인들 역시 윤선도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인조가 즉위한 후에 그는 잠시 관직에 나아가기도 했는데, 조정에서 서인 세력의 집중적인 견제로 인해 사직하고 다시 해남으로 귀향을 해야만 했다. 윤선도는 42세(1628)의 나이로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를 하여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로 진출했으며, 당시 이조판서이던 장유(張維)의 천거로 인해 왕자들인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의 정치적 경력은 이후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47세 때인 1633년(인조11)에는 다시 증광 별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예조정랑에 임명되었고, 성산현감을 역임한 후 사임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귀향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 해남에서 생활하던 무렵, 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병자호란’(1636)이 발발하였다.

13) 이 때 올린 <병진소>는 ‘이후 고산의 삶을 결정지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상원,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시 세계」, 『국역 고산유고』, 24면). 윤선도는 또한 이 시기 유배지에서 <견회요>와 <우후요> 등의 시조를 창작했다.

윤선도는 청의 침략 소식을 듣고서, 그 즉시 집안의 자제들과 노복(奴僕)들을 모아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배에 태워 강화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강화도는 이미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있는 남한 산성도 적군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임금이 남쪽으로 피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윤선도는 그 즉시 배를 남쪽으로 돌려 남하하던 중, 이미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 황제에게 항복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오랑캐에게 항복을 했다’는 치욕적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윤선도는, 제주도에 가서 은거하여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뱃길을 돌렸다. 그의 일행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하던 길에 태풍을 피해 잠시 보길도에 머물게 되었는데, 윤선도는 그곳의 풍광에 매료되어 그대로 정착하기로 하였다. 아마 보길도에 첫발을 디뎠을 때만 하더라도 그곳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후 윤선도는 제주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연 풍광이 수려한 보길도를 은거지로 삼아 정착하여 보길도와 해남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하지만 병자호란 당시의 처신으로 인해 윤선도는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서인들이 병자호란 당시 서울을 지척에 두고도 ‘임금을 알현하지 않았다(不奔間)’는 혐의로 그를 탄핵하였으며, 이 문제는 그에게 평생 동안 낙인처럼 따라붙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52세(1638)되던 해에 윤선도는 이 문제로 인해 경상도 영덕으로의 유배에 처해졌다가, 이듬해에 풀려나게 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해남으로 돌아온 이후 윤선도는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자식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즈음 새롭게 발견한 해남의 금쇄동에 거처를 마련하여 은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에게 있어 ‘금쇄동’은 이전까지 현실 정치에서 초래되었던 온갖 시름을 풀 수 있었던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로부터 10여 년간은 그는 현실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길도와 금쇄동을 오가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산중신곡〉 등 다수의 시조 작품들을 창작하였다.¹⁴⁾

윤선도가 63세(1649) 되던 해에 인조(仁祖)가 세상을 떠나고, 의문의 죽음

을 당한 소현세자에 이어 세자로 책봉되었던 봉림대군(효종)이 왕위에 올랐다. 효종은 즉위 이후 자신의 사부였던 윤선도에게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그는 매번 사직소를 올리며 사양하다가 마침내 관직에 나아가게 된다. 윤선도는 관직에 나아가기 전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요체를 논한 ‘기축소(己丑疏)’를 올리기도 했으며, 조정에 나아간 이후에는 당시의 권신들과 마찰을 겪으며 끝내 관직을 삭탈당하고 다시 해남으로 귀향하는 등 정치적 역경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나이 65세가 되던 1651년에는 보길도의 부용동에 거처하면서 〈어부사시사〉 40수를 창작했으며, 다음 해인 1652년(66세)에는 왕의 특명으로 관직에 나아갔지만 다시 탄핵을 받고 사직을 하였다.¹⁵⁾ 얼마 지나지 않아 효종에 의해 관직이 제수되어 다시 조정에 나아갔지만, 당시 조정의 권력자였던 원두표(元斗杓)의 비리를 논한 상소를 올린 이후 관직을 삭탈당하여 해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657년(효종8)에는 71세의 나이로 다시 관직에 제수되었다가 사직하는 등 여전히 조정의 대신들과 겉도는 처지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59년(73세)에 효종이 승하하여 왕릉을 정하는 산릉의 간심(看審)에 참여하였지만, 이 당시에도 서인들의 견제로 인하여 효종의 묘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 이로부터 촉발된 예송(禮訟) 논쟁에서 남인을 대표한 논객으로 참여하였다가 패배하여, 1660년 74세의 나이로 함경도 삼수에 유배에 처해지는 신세가 되었다. 79세(1665)에 유배지가 삼수에서 전라도 광양으로 옮겨져, 고향과 비교적 가까운 광양의 백운산 아래 옥룡동에서 한동안 지내기도 하였다. 81세(1667)가 되는 2년 후, 윤선도는 비로소 마지막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해남과 보길도를 오가며 생활하다, 85세(1671)의 나이로 보길도 부용동에 있는 낙서재(樂書齋)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쳤다.¹⁶⁾

14) 그의 나이 56세 때인 1642년에 금쇄동에서 〈산중신곡〉 연작 18수의 시조 작품을 창작했으며, 2년 후에는 〈산중속신곡〉 2수와 〈중반금〉 등의 시조를 짓기도 했다.

15) 이 때 경기도 양주의 고산에 있는 별장에 머물면서, 그의 마지막 작품인 〈몽천요〉 3수를 창작했다.

16) 그의 묘는 자신이 은거지로 택했던 해남의 금쇄동에 있고,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追

이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윤선도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부를 역임했던 봉림대군이 왕(효종)으로 등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으며, 때로는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다양한 관직에 등용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반대 당파의 비방에 결연하게 맞서며 치열하게 살면서, 생애의 절반 이상을 관직보다는 유배지와 은거지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다. 〈어부사시사〉의 창작 배경인 보길도는, 이러한 삶의 역정에서 그 자신이 은거지로 선택했던 장소이다. 그렇다면 그의 다단한 삶의 역정이 〈어부사시사〉에도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부사시사〉에 등장하는 ‘자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보길도’가 윤선도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보길도’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이곳을 은거지로 선택한 이유와 함께 〈어부사시사〉에 형상화된 면모와 그 의미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윤선도 자신이 보길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어부사시사〉의 작품 성격과 의식지향을 살피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서 논했듯이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윤선도는 은거하고자 떠나던 길에 보길도를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자호란 당시 서울 근교까지 왔다가 임금을 알현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분문(不奔問)’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조정 대신들에게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윤선도는 자신을 변호하고자 「공초문」을 올렸는데, 그 글속에서 자신이 보길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종적을 감추고자 하여 바다 가운데 섬으로 깊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더욱 이치에 가깝지 않습니다. 이 섬 안에는 본래 가노(家奴) 몇 호(戶)와 다른 사람 10

贈)되어 충헌(忠憲)이라는 시호(諡號)를 하사받았다.

여 호가 있는데, 봄·여름에는 물고기를 잡고 가을·겨울에는 매를 잡으니 남의 이목이 서로 접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 바다 가운데 섬으로 들어간 것은 어찌서 이겠습니까. 강도의 배가 내려오지 않아 곧바로 이곳으로 들어간 것이니, 그 또한 병란을 겪은 뒤에 마음의 병이 발광(發狂)한 소치입니다. 그리고 발광한 것은 실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한 데서 나온 것이니, 또한 어찌 성명께서 마땅히 공홀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실 바가 아니겠습니까. 평생 산수(山水)를 좋아하는 병이 깊었는데, 거처하는 섬은 천석(泉石)이 빼어난 절경인지라 이 때문에 몹시 좋아하여 흥을 붙여 근심을 잊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에 대한 일념은 밤 한술을 드는 데도 어찌 감히 잊었겠습니까. 매번 산이 텅 비고 밤은 고요한데 흰 달이 허공에 걸린 때를 당하면, 간절히도 ‘아름다운 사람을 그리워함이며, 하늘 한쪽 방면에 있도다.(望美人兮天一方)’ 하는 뜻이 있었으며, 이어 왕세자의 옥 같은 얼굴과 봉림 대군(鳳林大君)의 수려한 모습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강산에서 피리불고 북치며 정취를 붙이는 지경에 이른 것에 생각이 미치면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삼키게 하고 간장이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언덕과 골짜기를 찾아가 쉬며 두루 구경을 하였던 것은, 모두가 가슴속에 있는 답답한 회포를 풀어보려는 것이었습니다.¹⁷⁾

이 글에서 윤선도는 자신이 보길도를 택해 은거한 이유를 ‘병란(병자호란)을 겪은 뒤 마음이 발광한 소치’이며, ‘평생 산수를 좋아하며 보길도가 ‘빼어난 절경인지라 이 때문에 몹시 좋아하여 흥을 붙여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¹⁸⁾ 비록 우연한 계기로 발견하였지만, 보길도에 거처하면서 현실 세계

17) “欲藏蹤跡，深入海島云者，尤不近理。……此島中素有家奴數戶及他人十餘戶，春夏漁採，秋冬捉鷹，非與人耳目不相接之地也。……江都之舟未下，而直入于此，其亦經亂之後，心恙發狂之致，而其狂也，實出於愛君憂國，則亦豈非聖明之所宜矜恕也？平生性癖在於山水，而所居之島，泉石絕勝，是以酷愛托興而忘憂。雖然，君父一念，一飯敢忘？每當山空夜靜，皓月懸空之時，悠然有‘望美人兮天一方’之意，仍想鶴駕玉容，鳳林芝宇。而念到於江山，少使茄鼓凝情之境。則令人忍淚而腸痛。其所以經丘尋壑，流憩遐觀者，無非所以銷遣胸中鬱鬱之懷也。” 「공초문」, 『인조실록』 16년(1638) 무인 4월 26일자 기사. 이 기록은 상대 당파의 비방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올린 글이기에, 보길도를 선택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윤선도의 역정을 더듬어 본다면, 이러한 주장을 단순히 수사적 과장과 자기 정당화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18) 홍우원(洪宇遠)은 윤선도의 「시장(諡狀)」을 작성하면서, 이 당시 윤선도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병자년(1636) 이후부터 더 이상 그 시절의 세상에 뜻이 없어서, 인

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병자호란의 충격으로 인한 자신의 답답한 회포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자신은 보길도에 거처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일념’을 항상 잊지 않았노라고 강조하였다. 생각이 과거 병자호란으로 인해 청으로 끌려간 왕세자와 봉림대군의 행적에 이르면, 비록 몸은 자연에 거처하더라도 가슴속에는 답답한 회포가 쌓일 뿐임을 말하고 있다. 이 기록은 〈어부사시사〉의 창작 시기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작품 속에 형상화된 ‘현실 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던져준다고 여겨진다.

윤선도가 62세(1648)에 판서 정세규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글을 통해서도, 보길도를 선택하여 은거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어제 서울의 친구가 보낸 편지를 보니, 바다에 들어가 산다고 하여 번다한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뜬세상의 허랑한 이야기가 낚싯배 속에도 들어온 것일까요? 군자의 처세는 벼슬에 나아가거나 자연에 드는 두 가지 길뿐입니다. 조정이 아니면 산림이란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제가 이미 늙고 병들어 세상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산림의 수석에서 소요하며 여생을 마치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¹⁹⁾

아마도 보길도 은거에 대해서 세간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듯,

사(人事)를 사절(謝絕)하고 산과 바다를 찾아 들어가 천석(泉石)이 뛰어난 곳을 가려 거처하였다.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 나무를 심고 그 위에 정자를 지어 산수(山水)의 낙(樂)을 부쳤으며, 그곳에 악기(琴笛)와 가무(歌舞)를 배치하여 세상에 드문 곡조를 박자에 맞게 익히도록 해서 때때로 듣고 감상하며 자기의 회포를 의탁하고 답답한 심정을 풀기도 하였다. 또한 〈산중신곡(山中新曲)〉과 〈어부사(漁父詞)〉를 지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다.(自丙子後, 無復當世意, 謝絕人事, 尋山入海, 擇泉石之勝而居焉. 引流種樹, 築亭其上, 以寓山水之樂, 置琴笛歌舞, 使習稀調緩節, 時時翫聽, 以托其懷而宣其壹鬱. 又作山中新曲, 漁父詞以見其志.)”, 홍우원, 「시장」, 『고산유고』 부록.

19) “昨見洛中故人書, 以居海之故有煩言云. 浮世之狹, 亦入於釣船之中耶. 士君子之處世, 出與處二道而已. 非朝廷則山林, 乃古語也. 弟既癱病, 不能行於世路, 則不逍遙於水石以終餘年, 而更何往哉.”, 「상정판서세규서(上鄭判書世規書)」, 『고산유고』 권지4. 이 글을 쓴 지 3년 후에 〈어부사시사〉를 창작했으며, 그로부터 또 1년 후인 66세에 효종의 부름으로 윤선도는 다시 관직에 나아간다.

윤선도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자신의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군사의 처세는 벼슬에 나아가거나 자연에 드는 두 가지 길뿐’이기에, 벼슬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로는 자연에 은거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였다. 자신의 상황을 ‘이미 늙고 병들어 세상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였지만, 반대 당파에 의해 조정이 장악된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윤선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산림의 수석에서 소요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윤선도의 ‘은둔은 여전히 중앙 정계의 자장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정치 현실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²⁰⁾ 이러한 속에서 윤선도는 보길도 생활을 토대로 <어부사시사> 40수를 창작하였고, 이를 통해 ‘자연’에 은거하며 즐거움을 노리는 모습을 형상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¹⁾

특히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부르는 ‘어부사 여음’으로 ‘임금 은혜’를 역설한 작품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도는 작가 의식의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면모라 하겠다.²²⁾ ‘어부사 여음’에서 강산에 머무는 화자의 처지를 ‘자신의 분(分)이 아닌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이 윤선도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정치적 상황에 의해 몸은 보길도의 자연에 처해있지만, <어부사시사>를 통해 ‘임금 은혜’로 상징되는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았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어부사시사>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현실 세계’에의 언급은 단순히 ‘강호 생활의 흥취’를 강조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측면은 고사 인물을 들어 형상화한 작품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기로 하겠다.

20) 고미숙, 『윤선도평전』, 170면.

21)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어부사시사>에는 자연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윤선도의 현실 지향 의식이 지속적으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주지하듯이 ‘어부사 여음’은 <산중신품> 중의 <만흥> 제6수를 거듭 수록한 것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3. 〈어부사시사〉의 자연 인식과 작품 세계

전체 40수로 이뤄진 〈어부사시사〉는 윤선도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작품들 중 하나이다. 해남과 보길도를 오가며 생활하던 윤선도는 효종이 즉위(1649년)한 이후, 왕명에 의해 관직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집권을 하고 있던 서인들의 거들되는 견제와 비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직소를 올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650년에 마침내 귀향하여 보길도의 부용동에 은거했는데, 〈어부사시사〉는 보길도에 머물면서 65세 때인 1651년 가을에 자신을 어부에 비겨 창작한 작품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부사시사〉는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별로 각 10수씩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의 구성은 하루의 일과를 축약하여, 포구에서 아침에 배를 띄우고 저녁에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전래해 오던 〈어부사〉와 농암 이현보의 연시조 〈어부단가〉를 참조하여, 윤선도는 각 계절마다 10수씩으로 구성된 자신만의 〈어부사시사〉를 완성했던 것이다.²³⁾

주지하듯이 〈어부사시사〉는 기존의 ‘어부사’ 계열 작품들의 내용과 표현 등을 취해서, 윤선도의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겨울노래(冬詞)’의 10번째 작품 다음에 발문(跋文)을 수록하여, 〈어부사시사〉의 창작 동기와 배경 등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다.²⁴⁾ 〈어부사시사〉가 여타의

23) 조선시대 ‘어부가’ 계열 작품들의 수용과 변모 양상에 대해서는 이형대, 「어부 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 인식」을 참조할 것.

24) “동방(東方)에 예로부터 〈어부사(漁父詞)〉가 있었는데,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옛 시를 모아 가락을 붙인 것이다. 읍조리면 강바람과 바다의 비가 어금니와 뿔 사이에 생겨나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에 나부끼듯 세상을 떠나 홀로 설 뜻을 갖게 한다. 이런 까닭에 농암(鱣巖) 선생이 좋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퇴계(退溪) 선생께서 감탄하여 즐거이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음향(音響)이 서로 조응하지 않고, 어의(語意)가 깊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대개 옛 시를 모아놓은 것에 얽매인 탓이다. 그러므로 응색해지는 결함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그 뜻을 덧붙이고 우리말을 사용하여 〈어부사〉를 지었는데, 사계절을 각 한 편으로 하고, 한 편을 10장으로 만들었다. 나는 가락(腔調)과 음률(音律)에 대해 진실로 감히 망령되이 논의할 수가 없으며, 내가 ‘창주오도(滄洲吾道)’에 대해서는 더욱이 감히 몰래 덧붙일 수 없다. 그러나 맑은 못과 넓은

시조들과 다른 것은 전래해 오던 〈어부사〉에 포함되어 있는 후렴구를 전체 40수의 작품에 그대로 수용하여 다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평시조의 형식과는 구별되며, 평시조의 초·중장 사이와 중·종장 사이에 각각 후렴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 후렴구는 화자의 하루 일정을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²⁵⁾ 각 계절을 10수의 작품으로 묶어 하루의 일정으로 구성하는 등의 작품 형식은 〈어부사시사〉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작품에 그려진 ‘자연’의 면모 역시 작자의 체험에 근거하여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 반영된 ‘자연’은 탐미와 흥취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 세계’에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자연’의 형상과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작품에 형상화된 ‘자연’에 대한 화자의 공간 인식에 주목하여, 작품의 창작 배경인 ‘보길도’에 대한 윤선도의 언급을 참고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화자의 자족적인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이 틈틈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도, 때때로 고사(故事)의 인물들을 호출하여 현실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²⁶⁾

호수에 조각배를 띄우고 마음껏 노닐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소리 지르면서 서로 노를 젓게 한다면 또한 하나의 통쾌함이 아니겠는가! 또 뒷날의 창주(滄洲) 일사(逸士)가 반드시 이 마음의 기약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서로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구월 가을 신묘년, 부용동 낚시질하는 늙은이가 세연정(洗然亭)의 낙기란(樂飢欄) 가의 배 위에서 써서 아이들에게 보이노라. (東方古有漁父詞, 未知何人所為, 而集古詩而成腔者也. 諷詠則江風海雨生牙頰間, 令人飄飄然有遺世獨立之意. 是以龔巖先生好之不倦, 退溪夫子歎賞無已. 然音響不相應, 語意不甚備, 蓋拘於集古. 故不免有局促之欠也. 余衍其意, 用俚語, 作漁父詞, 四時各一篇, 篇十章. 余於腔調音律, 固不敢妄議, 余於滄洲吾道, 尤不敢窺附. 而澄潭廣湖片舸容與之時, 使人並喉而相棹, 則亦一快也. 且後之滄洲逸士, 未必不與此心期, 而曠百世而相感也. 秋九月 歲辛卯 芙蓉洞釣叟 書于洗然亭樂飢欄邊船上示兒曹.), 『고산유고』.

25) 각 계절을 노래한 10수를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으며, 특히 초·중장 사이의 후렴을 통해서 해당 계절의 하루 일정 중에서 ‘출항 준비(1~2수) - 출항(3~5수) - 귀항과 정박(6~10수)’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화의 방식은 때로는 작품의 흐름상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정치 현실’과 연관시켜 환기하려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고사 인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어 당대의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었던 것이라 하겠다.

〈어부사시사〉는 각 계절별로 구성된 10수의 작품은 하루의 일과로 축약하여, 아침에 배를 띄우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재현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이 작품을 구성하는 ‘한 수 한 수는 각각의 단위 안에서 시상을 완결하지 않고 일련의 경물(景物)과 흥(興)을 노래하는 지속적 맥락에 따라 나아간다.’²⁷⁾ 선행 연구에서 적절히 밝혔듯이, 〈어부사시사〉는 마지막 작품을 제외하면 작품의 종장 형식은 초·중장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²⁸⁾ 아울러 이 작품에는 보길도에서의 각 계절별 특징이 적절히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작자가 자신의 체험과 주변의 경물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각 계절별로 구성된 10수의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짜여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화자의 행적과 계절에 대한 감상을 그저 10수씩 병렬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병렬된 작품들을 하루 일과의 시간적 흐름에 맞춰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시하는 후렴구의 역할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어부사시사〉에서 후렴의 존재는 작품의 유기적인 면모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다음 인용 작품들을 통해서, 구조적 측면에서 후

26) 정민은 〈어부사시사〉에 등장하는 고사의 성격과 내용을 세밀하게 따져, 그것이 현실 세계와의 갈등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정민, 「〈어부사시사〉의 갈등상」 참조)

27) 김흥규, 「〈어부사시사〉의 종장과 그 변이형」, 107면.

28) 마지막 작품인 ‘겨울 제10수’를 제외한 〈어부사시사〉의 모든 작품의 종장 형식은 초·중장과 마찬가지로 ‘개방적 율격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논의된다. 김흥규, 「〈어부사시사〉의 종장과 그 변이형」 참조.

29) 초장과 중장 사이에 제시된 후렴은 항구로부터 출항을 하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귀항 과정을 지시하고 있다. 즉 매 계절 제1수~제5수에서는 배를 띄우고 닻을 들어 올려 출항을 준비하며, 돛을 달고 배를 저어가는 것으로 출항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귀

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압개에 안개 짓고 뿔뿔히 히 비친다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온다
 江江村촌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춘사1)

〈고유 *27, #3085.1〉³⁰⁾

날이 덥도다 물 우희 고기 떠다
 곶머기 들식 세식 오락가락 흥노고야
 낮대는 쥐여 있다 濁탁酒주入瓶병 시렛느냐.(춘사2)

〈고유 *28, #0803.1〉

위의 두 작품은 〈어부사시사〉의 ‘봄노래(춘사)’ 제1~2수로, 모두 후렴구를 생략하여 제시해 보았다.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 두 작품이 시간적으로 연속된 내용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먼저 앞의 작품인 ‘춘사1’은 봄날 아침 맑게 갠 주변 풍경을 묘사하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사라지고, ‘밤물(썰물)’과 ‘날물(밀물)’이 교차하는 초·중장의 내용은 작품의 배경이 아침 풍경임을 제시하고 있다. 바닷가의 봄철에는 새벽녘 안개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해가 비추면서 ‘포구 주변의 얇은 개’와 ‘꽃이 활짝 핀 뒷산’의 정경이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개’는 강과 하천 등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을 일컫는데, 물에서 가까운 바다에 위치해 화자가 포구에서 출항할 무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밤에 썰물이 밀려가고 아침이 되어 다시 밀물이 들어와, 화자가 탄 배를 띄우

향과 정박의 과정은 모두 제6수~제10수에 걸쳐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돛을 걷고 배를 멈추어 항구에 묶은 다음 닻을 내리고 배를 붙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각 계절을 그린 10수의 작품이 하루의 일과를 순차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렴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하겠다.

30) 앞으로 작품을 인용할 경우 〈고산유고 별집〉의 작품 번호(*)와 『고시조대전』(김흥규 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의 가번호(#)을 함께 기입하기로 한다.

기에 적당하다고 하겠다.

다음 작품인 ‘춘사’에서는 더운 날씨에 물속에서 고기가 뛰노는 모습과 주변에 갈매기가 날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화자는 낚싯대를 손에 쥐고 있으며, 마음속으로는 이미 잡은 물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픈 생각이 간절하다고 하겠다. 내용상으로는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굳이 봄이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계절과 상관없이 별이 좋은 어느 날 한낮의 풍경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화자의 위치가 선상이 아닌, 물가에서 낚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들 두 작품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기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기보다, 그저 주변의 정경이 화자의 시선에 의해 병렬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을 포함한 ‘춘사’의 작품들은 초·중장 사이에 제시된 후렴으로 인하여, 독자들은 어부의 봄철 하루의 일과를 연속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두 작품 역시 ‘비 떠라’(춘사1)와 ‘달 드러라’(춘사2)라는 후렴의 내용이 전제됨으로써, 포구에 정박해 있던 배를 바다에 띄우고 닻을 들어 올리는 출항의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춘사1’과 ‘춘사2’라는 말미의 표지와 초·중장 사이의 후렴이 없다면, 두 작품이 연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³¹⁾ 비록 전래된 ‘어부가’를 참조하여 〈어부사시사〉에 맞게 적절히 변개하여 후렴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개별적으로 병렬되어 있는 작품들에 연속된 시상을 제공하여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³²⁾ 기존의 연구들에서 〈어부사시사〉의 후렴이 작품의 구조를 유기적으로

31) 앞서 논했듯이 이 두 작품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춘사1’과 ‘춘사2’의 초장과 중장 사이에 삽입된 후렴구 때문이며, 이러한 양상은 〈어부사시사〉 전 작품들 중에서 연속된 임의의 두 작품을 선정하여 논의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32) 선행 연구에서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조선 후기 가집들에 〈어부사시사〉가 수록될 경우 그 순서는 물론 중장의 번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중장의 번이는 제40수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이 지닌 형식에 기인한다고 여겨지지만,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후렴을 제외한다면 개별 작품들의 유기적 특성이 그리 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김홍규, 「〈어부사시사〉의 중장과 그 변이형」 참조.

구성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어부사시사〉의 후렴은 ‘출어(出漁)에서 귀범(歸帆)까지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작품에 첨가되었으며, 그에 따라 작품의 ‘시상 또한 각 계절의 풍취에 얽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³³⁾ 따라서 〈어부사시사〉의 작품 세계를 구명하는데 있어서도, 각 계절별로 묶인 10수의 작품들을 후렴구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⁴⁾

각 계절로 구분된 작품들은 작자의 보길도 생활을 근거로, 해당 계절의 특징을 포착하여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특정한 하루의 일정으로 시간적 배경이 구성되어 있으나, 작품들에 형상화된 내용은 그 계절 동안 화자가 경험한 바를 취해 하루의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였다고 파악된다. ‘가을노래(추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석양녘 온산에 단풍으로 어우러진 풍경³⁵⁾과 낙엽을 떨구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산의 형상³⁶⁾은 같은 날이라면 공존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두 작품에서 ‘천산(千山)이 금수(錦繡)’(추사4)라는 표현은 단풍이 만개한 가을의 절정을 가리키고, ‘공산(空山) 낙엽(落葉)’(추사10)은 늦가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의 배경은 동일한 날이 아닌, 어느 정도의 시간적 흐름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에 속한 10수의 작품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의 화자의 경험을 토대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작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각 계절의 특징적인 모습을 포착하여, 그것을 다시 하루의 일과로 재구성하여 연시조의 형식으로 창작한 것이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³⁷⁾ 즉 〈어부

33) 정민, 「〈어부사시사〉의 갈등상」, 174면.

34) 〈어부사시사〉에서 ‘후렴’의 역할과 의미 등이 작품의 형상과 미의식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요한다고 여겨진다. 이 작품에서 후렴이 각 계절의 형상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5) ‘夕靄陽陽이 박이니 千천山산이 錦금繡슈 | 로다’, 〈추사4〉 중장.

36) ‘空공山山落落葉葉의 길흙 엷디 아라볼고’, 〈추사10〉 중장.

37) ‘추사’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계절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 역시 꼼꼼하게 따져보면 특정

사시사)에서 각 계절을 노래한 10수의 작품들에는 특정한 하루의 일정만이 아니라, 보길도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화자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계절적 특징을 반영하여 시간의 흐름에 맞춰 이상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부사시사〉에 형상화된 자연 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는 단일한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의 말미에 첨부된 ‘어부사 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지향하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부사시사〉의 체제는 먼저 각 계절별 10수씩 모두 40수의 작품과 함께 발문이 제시되고, 뒤이어 ‘어부사 여음’이 수록되어 있다.³⁸⁾ 이는 아마도 〈어부사시사〉를 노래한 다음, 정리하는 의미로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연행을 마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지하듯이 ‘어부사 여음’은 화자의 ‘강산(江山)에서의 삶이 임금의 은혜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이 여음에 표현된 의미가 더 심중하고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여음이 특히 연군의 노래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질 수밖에 없다.’³⁹⁾ 그렇다면 〈어부사시사〉에서는 강호자연에서의 자족적인 삶과 함께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이 틈틈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부사 여음’을 통해서 화자가 비록 몸은 조정을 떠나있지만 마음만은 늘 임금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부사시사〉에서의 ‘자연’은 늘 현실 세계의 ‘임금’을 전제할 때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하지만 개별 작품들 속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달리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먼저 윤선도 시조에서의 자연

한 날의 하루 일과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즉 작품 속에 형상화된 각 계절의 모습은 해당 계절 동안 작가가 배를 타면서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하루의 일과로 축약하여 형상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사계(四季)의 형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38) “江江山산이 도타 혼들 내 分분으로 누연느냐 / 님군 恩은惠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 아무리 갑고자 扃야도 扃을 일이 업세라.”〈고유 *67, #0137.1〉. 이 작품은 앞에서 논했듯이, 〈산중신곡〉 연작 중 〈만홍〉의 제6수와 동일한 작품이다.

39) 성기옥, 「고산 시가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기본 틀」, 225면.

은 기본적으로 강호시조에서 형상화된 ‘혼탁한 정치 현실과 대립되는 청정한 공간’⁴⁰⁾이라는 의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 대체로 자연의 풍경과 화자의 흥취를 제시함으로써, ‘강호에서 누리는 기쁨과 충족감, 그로부터 고양된 흥취가 넘쳐나고 있’⁴¹⁾다고 할 것이다.

마람 님희 바람 나니蓬봉窓창이 서늘코야
 돌 드라라 돌 드라라
 녀름 바람 멩홀소냐 가는 대로 빅 시겨라
 至지菊국忿총 至지菊국忿총 於어思스좌와
 北북浦포 南남江강이 어딴 아니 도홀러니.(하사3)

〈고유 *39, #1520.1〉

物물外외에 조흔 일이 漁어父부生싱涯에 아니러나
 빅 떠라 빅 떠라
 漁어翁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렛더라
 至지菊국忿총 至지菊국忿총 於어思스좌와
 四스時시 興흥이 흥가지나 秋츄江강이 음듬이라.(추사1)

〈고유 *47, #1748.1〉

첫 번째 작품은 여름을 노래한 작품으로, 화자가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주변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정서를 담담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뚝을 달고 본격적으로 출항에 나선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더운 여름철 때마침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배를 맡기고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라 하겠다. 물 주변의 물가에 피어있는 마름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배에 딸린 선실의 창문(봉창)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화자는 서늘함을 느낄 정도이다. 바닷가의 여름 바람은 때때로 방향이 바뀌어 늘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오는 것이 아니고, 화자 역시 딱히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니 바

40) 김흥규, 「강호자연과 정치 현실」,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참조.

41) 고미숙, 「우리말의 연금술사, 정철과 윤선도」, 205면.

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배가 움직이도록 그저 맡겨둘 뿐이다. 돛을 단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북쪽의 포구 혹은 남쪽의 강으로 간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라 할 것이다. 이 작품에서 보듯 화자는 굳이 고기를 잡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부로 자처하며 배를 타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만끽할 뿐이다.

〈어부사시사〉에는 이처럼 주변의 경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화자의 형상을 그려낸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 속의 상황이 저절로 그려지도록 할뿐 아니라,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는 화자의 정서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많은 작품들에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에, 그 속에 반영된 자연의 형상은 작자가 보길도에서 겪었던 생활에 기초하고 있었을 것이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어부사시사〉를 비롯한 그의 작품에 형상화된 자연의 면모는 관념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에 입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자연미의 절정과 그의 시적 감수성이 만나 이룩된 〈어부사시사〉는 강호가도의 흐름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⁴²⁾

두 번째 작품은 어부의 가을 생활에 대해서 형상화하고 있는데, 화자는 가을을 맞아 새롭게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고자 한다. 초장에서 화자는 ‘속세를 벗어난 삶(物外)’을 긍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어부 생애’에 대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속세의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양화에 흔히 등장하는 것처럼 어부의 삶은 또한 많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나아가 배를 타고 즐기는 생활에서 느껴지는 사계절의 흥취가 다 좋지마는, 화자는 ‘추강(秋江)⁴³⁾’으로 표현된 가을

42) 고미숙, 「우리말의 연금술사, 정철과 윤선도」, 203면.

43) 보길도 주변의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부사시사〉에 ‘강촌(江村)’·‘추강(秋江)’·‘동호(東湖)’·‘서호(西湖)’ 등 강이나 호수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이 작품이 과연 바

철의 흥취를 으뜸으로 여기고 있다. 흔히 가을은 결실의 계절로 표현되는데, 강호 자연의 사계절 중에서 화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지칭할 만하다. 그리하여 가을의 형상은 화자의 여유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계절로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표현은 바로 ‘흥(興)⁴⁴⁾이라 하겠는데, 이는 자연에서 즐기는 화자의 고양된 흥취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부사시사〉의 시적 관심은 강호에서 누리는 나날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으로 집중되며, 바로 여기에서 고양된 기쁨과 충족감이 흥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⁵⁾ 특히 ‘추사’는 ‘하사’와 더불어 첫 번째 작품에서부터 화자의 ‘흥’을 내세우고 있는데,⁴⁶⁾ 이는 여름과 가을이라는 계절이 화자의 흥취를 발현시키는 요소가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⁴⁷⁾ 대체로 ‘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단순한 관념적 정취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정황 및 행위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⁴⁸⁾ 나아가 〈어부사시사〉의 마지막 작품인 ‘동사10’⁴⁹⁾에서도 역시

다를 배경으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신중, 「〈어부사시사〉의 공간과 시간」, 『국어국문학연구』 제19집,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7, 505~506면) 그러나 실제로 보길도를 답사해 보면, 윤선도가 보길도에서 배를 출항했던 황원포에서는 노화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시선을 가로막고 있어 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작품의 창작 당시 작자의 시선에 포착된 주변 경물에 대한 즉물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4) 〈어부사시사〉에서 ‘흥’이란 표현은 모두 9작품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의 고아(高雅)한 즐거움의 향유라는 측면이 강화·확대된 결과’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김흥규, 「〈어부사시사〉에서의 흥의 성격」, 167면.

45) 김흥규, 「〈어부사시사〉에서의 흥의 성격」, 164면.

46) ‘하사’는 다음과 같다. “구준비 머저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 빙 떠라 빙 떠라 / 낮대를 두리메니 기쁜 흥흥을禁不住 못홀되 / 至지菊菊愈愈 至지菊菊愈愈 於이思스臥와 / 煙연江강疊疊嶂嶂은 뒤라셔 그려 내고.”, 〈고유 *37, #0457.1〉.

47) 〈어부사시사〉에서 ‘흥’이 등장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춘사5’, ‘춘사9’, ‘하사1’, ‘하사6’, ‘추사1’, ‘추사4’, ‘추사6’, ‘동사7’, ‘동사10’ 등. 특히 다른 계절과 달리 ‘추사’에만 ‘흥’이라는 용어가 모두 3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계절에 대한 작자의 정서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 해석된다. 작품의 구조에서 ‘흥’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화자의 정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

48) 김흥규, 「〈어부사시사〉에서의 흥의 성격」, 164면.

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화자가 보길도에서 생활하는 사계절 내내 그러한 정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된다.

이처럼 〈어부사시사〉에는 자연 그 자체를 배경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화자의 고양된 흥취를 담아내는 표현들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주변의 자연을 담담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적 환경과 화자의 취향이 적절히 결합하면 고양된 감정의 표현인 ‘흥’이라는 용어로 발현되기도 한다. 아울러 화자의 고조된 흥취가 보다 깊어지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연 공간이 ‘도화원’⁵⁰⁾이나 ‘선계·불계’⁵¹⁾ 등의 이상향과 비견되는 곳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작자 자신의 보길도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작품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하겠다.

때로 화자는 자연에 머무는 자신의 처지를 현실 세계의 그것에 비교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 흔히 ‘현실과의 갈등 구조를 드러낸다’고 논의되기도 한다.⁵²⁾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대체로 현실은 부정적인 면모를 지니며, 그에 비해 화자가 처한 강호는 이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水洵國국의 7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萬만頃경澄딩波파의 슬크지 容容與여흥자
 至지菊국국총 至지菊국국총 於어思스卧와

49) “어와 저머러 간다 寔연息식이 맘당토다 / 빅 붓터라 빅 붓터라 / 7는 눈 빠린 길 불근 곳 훑터던 더 흥치며 거러가서 / 至지菊국국총 至지菊국국총 於어思스卧와 / 雪歲月월 이 西서峯봉의 넘도록 松송窓창을 비겨 잇자.”〈고유 *66, #3212.1〉.

50) “醉취흥야 누언다가 여흘 아래 느리려다 / 빅 띠여라 빅 띠여라 / 落락紅홍이 흘러오니 桃도源원이 갓갓도다 / 至지菊국국총 至지菊국국총 於어思스卧와 / 人인世世紅홍塵塵이 언메나 7렸느니.”(춘사8)〈고유 *34, #5044.1〉.

51) “간밤의 눈 7 後후에 景경物물이 달랏고야 / 이어라 이어라 / 압희는 萬만頃경琉璃璃리 뒤희는 千천疊疊玉옥山山 / 至지菊국국총 至지菊국국총 於어思스卧와 / 仙仙界界계니가 佛佛불界界니가 人인人間간이 아니로다.”(동사4)〈고유 *60, #0082.1〉.

52) 정민, 「〈어부사시사〉의 갈등상」 참조.

人人間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추사2)

〈고유 *48, #2785.1〉

물그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히고

빅 킷여라 빅 킷여라

머흔 구름 恨恨티 마라 世世上상을 ㄹ리온다

至지菊국忿총 至지菊국忿총 於어思스좌와

波파浪랑聲성을 厭염티 마라 塵塵喧喧을 막느또다.(동사8)

〈고유 *64, #1734.1〉

첫 번째 작품에서는 가을철 배의 닻을 올리고 출항을 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초장에서 맑고 푸른 가을 바다는 ‘수국(水國)’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가을을 맞아 잔뜩 살이 오른 물고기를 낚겠다는 화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징파(澄波)’는 맑게 일렁이는 파도를 지칭하며, ‘용여(容與)하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즐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장에서는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풍경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문득 화자는 ‘인간(人間)’으로 표현된 속세를 돌아보면서, 강호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위치가 그곳과 ‘멀수록 더욱 좋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윤선도의 ‘내면 의식과 현실과의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⁵³⁾고 하겠는데, 아직 자연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속세를 의식하는 화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은 겨울철 바다에 나갔던 화자가 배를 포구에 정박하면서, 떠오르는 상념을 펼쳐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포구에 배를 매어 두려는 순간, 물가에 홀로 서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화자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겨울철이면 낙엽을 떨구고 앙상하게 서있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소나무는 겨울철에도 푸릇함을 잃지 않고 꾀꾀함을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화자는 ‘씩씩하고도 외로운

53) 정민, 「〈어부사시사〉의 갈등상」, 178면.

물가의 소나무’를 보면서, 문득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연상했을 지도 모른다. 화자가 처한 강호에서도 간혹 ‘머흔 구름’이 끼고, 겨울의 매서운 바람으로 생기는 ‘파랑성(波浪聲)’이 들려오기도 한다. 사대부들의 시조 작품에서는 ‘구름’과 ‘파랑성’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이들이 속세의 모습이나 ‘진훤(塵喧)’을 막아주는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새까만 구름’이나 ‘파도소리’와 같은 겨울철의 거친 대상조차도, 작자의 의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강호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지만, 때때로 떠오르는 속세에 대한 상념까지 지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화자가 처해 있는 자연은 ‘혼탁한 현실 세계’와 뚜렷이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어부사시사〉만의 특징이 아니라, 여타의 사대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선도는 자신의 작품 속에 자연의 형상을 ‘지극히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완상의 대상’⁵⁴⁾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타의 강호시조에서도 다양한 ‘고사(故事)’가 등장하지만, 〈어부사시사〉에서는 작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고사(故事)를 근거로 작품을 형상화할 경우,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자연의 의미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 엇더허리
 이어라 이어라
 뭇오江강의 가자 허니 千천年년怒노濤도 슬플로다
 至지菊국念총 至지菊국念총 於어思스蹕와
 楚초江강의 가자 허니 魚어腹복忠통魂혼 날글세라.(하사4)

〈고유 *40, #1735.1〉

54) 고미숙, 「우리말의 연금술사, 정철과 윤선도」, 206면.

滄창洲주품오도도를 네브터 날린더라
 달 디여라 달 디여라
 七칠리리여흘 羊양피피 옷슨 그 언더흐 니런고
 至지菊국순충 至지菊국순충 於어思스탄와
 三삼千천六육百백 낙시질은 손고븐 제 엇디턴고.(동사9)

〈고유 *65, #4560.1〉

첫 번째 작품에는 두 인물에 대한 고사(故事)가 제시되어 있는데, 중국 오나라의 충신 오자서(伍子胥)와 초나라의 충신인 굴원(屈原)이 바로 그들이다.⁵⁵⁾ 주지하듯이 초장의 내용은 굴원의 〈어부사〉에 등장하는 ‘탁영가(濯纓歌)’의 구절이 바탕이 된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발을 씻겠다’는 내용은, 현실 정치가 이뤄지는 공간이 혼탁하기 때문에 화자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작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초장에 언급하였듯이, 자신은 이미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종장과 종장에서는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다가 끝내 조정에서 쫓겨난 고사의 인물들이 소환되고 있다. 오자서는 오나라를 위한 충간(忠諫)에도 불구하고, 끝내 죽임을 당한 후에 말가죽에 싸여 오강에 버려진다. 그리하여 배를 타고 나간 바다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면, 화자는 문득 오자서의 억울함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굴원의 고사가 담긴 종장의 내용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초강’은 굴원이 참소(讒訴)로 인해 귀향을 갔다가 생을 마친 ‘떡라수’를 지칭하는데, 후대의 사람들은 그 강의 물고기들이 굴원의 시신을 먹고 자랐기에 그곳에서 잡은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았다고 한다. 떡라수의 물고기들 뱃속에는 굴원의 충혼(忠魂)이 담겨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처럼 후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충(忠)’을 대변하는 인물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비록 그들이 최후를 마친 곳과는 멀리 떨어져

55) 이 작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김용찬, 『윤선도 시조집』, 126~129면을 참조할 것.

있지만, 어부로 자처하는 화자에게는 ‘바다’와 ‘물고기’는 오자서와 굴원을 연상시키는 대상인 것이다. 즉 이 작품을 통해서, 고사의 인물들인 오자서와 굴원처럼 자신은 비록 어찌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조정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충성심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을 형상화한 작품들에서는 때때로, 그 배경이 되는 자연(‘오강’과 ‘초강’)이 현실 세계에서 방축(放逐)된 인물들이 비극적 최후를 맞는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다음 작품에는 어부로 자처하는 화자의 은거 목적과 의식지향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제시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초장의 ‘창주오도(滄洲吾道)’는 중국의 시인인 두보(杜甫)의 시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자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화자는 옛날부터 ‘창주오도’를 실천한 두 명의 고사 인물을 작품 속에 끌어들었다. 중장은 중국 후한시대의 엄광(嚴光)에 관한 고사로, 그는 친구인 광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신을 등용하고자 했음에도 끝내 응하지 않고 은거하는 삶을 택했던 인물이다. 중장 역시 흔히 강태공으로 알려진 여상(呂尙)에 관한 고사로, 10년 동안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주나라 문왕에게 발탁되어 정치에 참여해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라 하겠다. 작자는 자연에 은거하면서 낚시로 소일하였던 엄광과 여상이라는 두 인물을 끌어들여,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비유한 것이라 이해된다.

윤선도는 일찍이 ‘군자의 처세는 벼슬에 나아가거나 자연에 드는 두 가지 길뿐⁵⁶⁾’임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보길도에 거처하고 있는 자신의 처세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자신은 비록 조정에서 물러나 보길도에 머물며 낚시질이나 하며 살고 있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관직에 나아가 여상처럼 자신의 능력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그러한 세월이 오지 않더라도, 엄광처럼 자연에 은거하는 삶도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의 윤선도에게는 ‘엄광의

56) “士君子之處世，出與處二道而已。非朝廷則山林，乃古語也。” 『상정판서세규서(上鄭判書世規書)』, 『고산유고』 권지4.

삶'과 '여상의 삶'이 모두 가능했지만, 내심 다시 정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는 후자의 삶에 더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님군 은혜'를 강조하는 '어부사 여음'의 내용도 역시 화자의 현실 정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사(故事)를 수용한 작품들의 경우에도, 해당 인물의 행적과 연관시켜 자연의 의미를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양상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았다. 〈어부사시사〉에는 대체로 강호시조에서 형상화된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수용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그 모습이 관념적 공간이 아닌 보길도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실 세계와의 대비를 통해 자연의 형상을 그려낼 경우, '혼탁한 현실 세계와 구별되는 청정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하지만 〈어부사시사〉에서 고사를 수용하여 자연을 그려낼 경우, 역사적 인물의 행적과 관련되어 그 성격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양상이라 여겨진다. 특히 자연에 은거하며 지내는 작자의 의식지향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 정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고산 윤선도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조 작가로, 정철과 더불어 우리 시가의 새로운 경치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윤선도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가 보길도를 은거지로 선택한 이유와 〈어부사시사〉의 창작 동인을 연관시켜 다루고자 했다. 역사적으로 격변기라 할 수 있는 17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윤선도는, 당쟁의 격화로 인해 그의 생애 내내 적지 않은 부침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우연히 발견한 남해의 고도 '보길도'에 정착하면서, 그곳은 이후 그의 생애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

다. 정치 현장에서 물러나 은거하고 있던 윤선도는 보길도와 남해를 오가면서 다수의 시조를 창작하였고, 보길도를 배경으로 한 〈어부사시사〉는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어부사시사〉는 전래해 오던 ‘어부사’ 계열 작품들의 성과를 취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40수의 연시조로 구성된 작품이다. ‘어부사’의 후렴을 취해서 재창작했기에, 〈어부사시사〉의 형식은 여타의 시조들과도 구별되고 있다. 즉 초·중장과 중·종장 사이에 각각 후렴구를 삽입하였으며, 사계절을 각각 10수의 작품에 배분하여 각 계절의 특징적인 면모를 화자의 경험과 결합시켜 표현한 작품이라 하겠다. 각 계절에 배분된 작품들은 내용상으로는 그저 병렬적으로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유기적인 형상으로 묶어주는 것이 이 작품의 후렴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계절의 작품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후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어부사시사〉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계(四季)의 형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고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어부사시사〉에 보이는 ‘자연’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간 그 자체이기도 하며, 때로는 현실 세계와 대립되는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보길도라는 구체적인 자연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는데, 이 작품에 반영된 ‘자연’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때로 화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주변 경물을 담담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그것에 취하여 고조된 흥취를 발산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인간 세계가 아닌 ‘이상향’에 비견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종종 고사의 인물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의식지향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어부사 여음’의 내용은 〈어부사시사〉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연군 의식’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자연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은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정치 현실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창작 동인을 유추해 보고, 작자의 의식 지향을 읽어낼 수 있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고산유고 별집』(목판본)

이형대 외,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김용찬, 『윤선도 시조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6.

고미숙, 『윤선도 평전』, 한겨레출판, 2013.

김홍규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2. 논저

고미숙, 「우리말의 연금술사, 정철과 윤선도」, 『우리 고전문학을 찾아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193~207면.

김대행, 「〈어부사시사〉의 외연과 내포」, 『고산연구』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1~47면.

김신중, 「〈어부사시사〉의 공간과 시간」, 『국어국문학연구』 제19집,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495~507면.

김홍규, 「〈어부사시사〉의 종장과 그 변이형」,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75~93면.

김홍규, 「〈어부사시사〉에서의 ‘흥’의 성격」,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61~170면.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 현실」,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35~160면.

류해춘,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 그 표현의도와 수사학」,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209~232면.

(UCI : G704-001062.2011..27.013)

성기옥, 「고산 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205~248면.

이상원, 「〈어부사시사〉의 현실주의적 성격」, 『어문논집』 제34집, 안암어문학회, 1995, 95~117면.

이상원, 「〈어부사시사〉 창작의 의도와 실제」,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270~288면.

이상원,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시 세계」,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23~45면.

이이화, 「조선조 당론의 전개 과정과 그 계보」,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 변동』, 한길사, 1994, 15~84면.

이형대, 「어부 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 인식」,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 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천』, 소명출판, 2002, 11~214면.

정민, 「〈어부사시사〉의 갈등상」, 『고전문학연구』 제4집, 한국고전문학회, 1988, 173~204면.

정병현, 「어부사시사의 배경과 성격」, 『고산연구』 제3호, 고산연구회, 1989, 1~22면.

조운제, 『조선시가사강』, 동광출판사, 1837, 330~343면.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4~115면.

| Abstract |

Cognition of Nature and Oeuvres Appearing in <Eobusashisa>

Kim, Yong-chan

Gosan Yoon Seondo, who left as many as 75 *Sijo* works, is recognized, together with *Songgang Jung Cheol*, as one of the two best authors of Korean classical poetry in the *Chosun* Dynasty era. *Yoon Seondo* left *Sijo* works only, whereas *Jung Cheol* created works in both fields of *Sijo* and *Gasa*, the two major genres of Korean classical poetry. In particular, *Yoon Seondo*'s works that encapsulate nature are regarded to have shown a new cognition of nature. Contentment in living in nature and resulting elevated excitement are demonstrated in his works, which is the reason why *Yoon Seondo* is regarded as the summit of Korean classical poetry in the *Chosun* Dynasty era.

In this article, the cognition of nature appearing in <*Eobusashisa*> is investigated and *Yoon Seondo*'s oeuvres and consciousness as an author are discussed. For these objectives, the signification of *Bogil* Island, the spatial background of <*Eobusashisa*>, in his life is examined. Based on a number of documentations *Yoon Seondo* left, we can estimate why he chose *Bogil* Island as his country retreat and how the signification of the island was encapsulated in the work. The images of four seasons reflected in the work are 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ason were taken appropriately and contracted into an idealized daily life. In particular, the meanings of various old stories included throughout the work that the author intended to present were investigated.

It is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the ‘refrain’ added to each sub-work and the ‘*Eobusa Yeoenum*’ that plays a role terminating the entire work when discussing the oeuvres of <*Eobusashisa*>. The ‘refrain’ encompasses all sub-works (10 for each season) given in parallel into a unified stream, thereby assigning organic nature to the work. *Eobusa Yeoenum* expresses ‘yearning toward the king’ that is not mentioned explicitly in 40 sub-works, thereby presenting the theme of work deliberately. In other words, *Eobusa Yeoenum*

demonstrates that the author still has a lingering affection for real politics though he is chanting self-contained life in nature.

The nature encapsulated in <*Eobusashisa*> never appears as a single characte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narrator's cognition of nature shown in the work and extract its signification. In this article, we investigate *Yoon Seondo*'s life and creative motivation and discuss how the 'nature' encapsulated concretely in the work is recognized.

Key words : Yoon Seondo, Eobusashisa, Sijo, Congnition of Nature, Yearning toward the King, Oeuvres etc.